

# 2026 국악창작곡개발 - 제20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 2차 예선 심사 결과 발표

□ 심사개요

- 심 사 명 : <2026 국악창작곡개발-제20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2차 예선 심사
- 심사일시 : 2026년 4월 4일(토), 10:00~18:30
- 심사장소 : 국악방송 12층 공개홀
- 심사내용 : 1차 예선에서 선정된 20곡의 실연 심사
- 심사항목 : 대중성(30%), 음악의 완성도(30%), 독창성과 창의성(20%), 국악적 요소의 반영(20%)
- 심사위원

	분야	이름	주요 프로필	비고
1	국악 (기악/ 현악)	문양숙	- 201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표창 - 문양숙 가야금 앙상블 대표 - 국립국악관현악단 가야금 수석 단원	
2	국악 (성악/ 판소리)	신진원	- 2010 대한민국 인재상 대통령상 수상 - 전라북도 무형유산 판소리 수궁가 이수자 -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	
3	문화예술 (기획)	심재훈	-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성공개최기념 페스티벌 총괄 프로듀서 - 국가유산청 출범식 프로듀서 -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 제작	
4	국악 (작곡)	양승환	- KBS 국악대상 작곡상 수상 -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악인큐베이팅사업 <JUMP UP> 음악감독 - 한국예술종합학교·영남대학교 출강	
5	국악 (지휘, 기악/ 관악)	이승현	- 국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역임 -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역임 -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심사위원장

□ 심사결과

○ 총 10곡 선정 ※경연순서 순

경연순서	팀명	곡명	구분	비고
4	조선버전	청흔(靑痕)	연주곡	
5	이사이	감돌아든다	노래곡	
6	B-error(삐에로)	박-error(박이 고장났다?)	노래곡	
9	포짓(4Jit)	허튼짓	연주곡	
10	개호주 밴드	장기블루스	노래곡	
12	하모예	Black wave	연주곡	
13	판도라	마키아	연주곡	
14	염경관	권마성(勸馬聲)	노래곡	
15	비랑(飛浪)	적토마(赤兎馬)	연주곡	
19	적감(積感)	BNR(브누르)	노래곡	

※ 본선 오리엔테이션 개최일 2일 전까지 실격, 자진 포기 등 선정된 본선 진출팀의 대회 참여가 불가능한 사유 발생할 시, 후순위 예비팀(2팀)을 본선 대회 진출팀으로 함

○ 주요 심사평(가나다 순)

이름	주요 심사평
문양숙	<p>이번 21c한국음악프로젝트 심사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대중과 소통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연주자들의 혼과 뼈를 갈아 넣은 작품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p> <p>전통과 현대, 그리고 팀들의 색채를 확실히 보여주는 이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우러지는 연주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연주하는 무대를 즐기고 있고 감성, 발림, 의상까지도 자기 콘셉트에 맞게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본연의 본질적인 부분이 퇴색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긴 했습니다.</p> <p>여러 좋은 의견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p>

이름	주요 심사평
신진원	<p>우리의 젊은 예술가들이 우리 음악을 단순히 답습하여 계승하는 데 그치지 않고, 깊은 고민의 흔적을 담아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밴드 구성의 팀이 많았으며, 악기와 보컬 간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밴드에 보컬이 얹히는 형태를 넘어서, 사운드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보컬의 역할이 강화된다면 보다 완성도 높은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한편 일부 팀들은 국악 요소를 표면적으로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악기 본연의 음색과 표현력을 전면에 내세워 국악기로만 무대를 구성하는 등 인상적인 시도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p> <p>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 본선에서는 더욱 자유롭게, 후회 없는 무대를 펼치시길 응원합니다.</p>
심재훈	<p>20회를 맞이한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2차 예선에 선정된 20개팀을 보면서 단순히 유행하는 시대의 흐름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음악의 기반 아래 다양한 장르와 접목, 음악적 시도 등 다채로운 무대를 볼 수 있어서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p> <p>다만 아쉬운 점은 사전 제출한 신청서에서의 작품적 모티브에 비해 이를 실현하는 음악적, 연출적 구조가 빈약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창작곡이라는 기본 명제에 대부분이 연주를 베이스로 한 몇몇팀은 가창들이 더해지지만 본인들이 소재와 주제로 삼은 모티브들이 과연 공연을 보는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 부분을 먼저 고민하며 음악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작품 의도는 명확하나 이를 실현하는 작업들이 조금 더 조밀하게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작품들이 선보여지고, 참여했던 팀들도 지속적인 창작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몇몇 팀들이 무대에서 연출이 기획의도와 달리 무대에서 소극적인 무대매너를 보여주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추후 예약당에서 있을 최종심사에는 이러한 무대 연출적인 부분이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칠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많이 참여하여 우리의 전통음악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선정된 좋은 팀들이 음악적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인 작품 작업을 지속하길 바라겠습니다.</p>
양승환	<p>지난 19-20년 예술감독으로 참여한 후 6년 만에 심사를 맡게 되었는데, 그사이 참여 뮤지션들의 연주 기량이 놀랍도록 향상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더욱 다양해진 음악적 색채와 아이디어가 더해진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었던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대중성'이라는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작/편곡과 관련된 작품의 완성도와 퍼포먼스를 포함한 연주력, 그리고 차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차 예선 심사에 임했습니다.</p> <p>비록 이 대회가 경연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모두 각자의 음악적 개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p>
이승헌 (심사위원장)	<p>이번 대회는 밴드 형태의 역동적인 시도와 함께, 예술적 탐구와 대중적 지향점 사이의 치열한 고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압도적인 예술성과 기량으로 대중성을 보완한 팀이 있는가 하면, 연주상의 작은 실수 등이 곡의 완성도를 떨어트리는 아쉬운 지점도 공존했습니다. 국악, 특히 창작국악의 미래는 어느 한 지점의 극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기량을 바탕으로 대중과 호흡하며 그 경계를 허무는 균형 감각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p> <p>이에 본선에 진출하신 참가자분들과 앞으로 21c한국음악프로젝트에 지원하실 분들에게 단순한 장르의 결합을 넘어, 자신의 음악적 화법이 대중에게 어떻게 닿을지 더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높은 예술적 성취가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연주력이라는 기본기를 더욱 연마하고, 대중의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접점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p>

□ **향후 일정(안)**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및 내용 변동 가능

구분	일정 및 장소	비고
<b>본선 진출팀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b> - 본선 관련 유의 사항 안내 - 본선 경연순서 추첨 - 음악감독 멘토링 및 음원 녹음 안내 - 프로필 촬영 이미지 디렉팅 및 일정 협의 - 기타 대회 준비 사항, 일정 등 안내	4/14(화) 15:00 / 국악방송 대회의실	본선 진출팀별 대표 1인 이상 참가 필수
<b>프로필 사진 및 영상 촬영</b>	4월 중 / 외부	
<b>본선 진출팀 대상 음악감독 멘토링 진행</b>	4월 중~5월 초 / 국악방송	
<b>음원 녹음</b>	5월 중 / 외부 스튜디오	
<b>라디오 출연</b>	6/15(월)~6/19(금)(예정) / 국악방송	
<b>본선(실연 심사/공개)</b>	6/25(목) 13:00~22:00(예정)	TV, 라디오, 유튜브 생방송

□ **문의처**

- 국악방송 21c한국음악프로젝트 운영사무국 (02-300-9973~4 / 21cproject@igbf.kr)